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 주관적 행복 여부

- _ 자신에 대한 생각, '행복하다' 57% vs '불행하다' 23%
- _ ※ UN 행복지수 순위, 한국 59위 기록

■ '행복의 조건'에 대한 생각

- _ '고정적 수입'과 '건강'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_ 각 요인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향력 커져

■ '행복의 조건' 1 : 물질적 측면 세부 내용

- _ 2030세대, 여성층의 물질 요인 '행복 영향력' 높아
- _ 40대 '행복 영향력' 높고, 5060세대 '불안 영향력' 높아
- _ 소득 높을수록 '행복 영향력' 점수 높아져
- _ 행복의 물질적 요인에 대한 보수층과 진보층 생각 비슷

■ '행복의 조건' 2 : 비물질적 측면 세부 내용

- _ 20대와 30대, 그리고 세대내 남녀 차이 존재
- _ 4060세대, 연령 높아질수록 '행복 영향력' 점수 높아
- _ 소득 높을수록 비물질 요인 '행복 영향력' 점수 높아져
- _ 행복의 비물질적 요인에 대한 생각, 이념별 차이 없는 편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4월 8일(금) ~ 4월 10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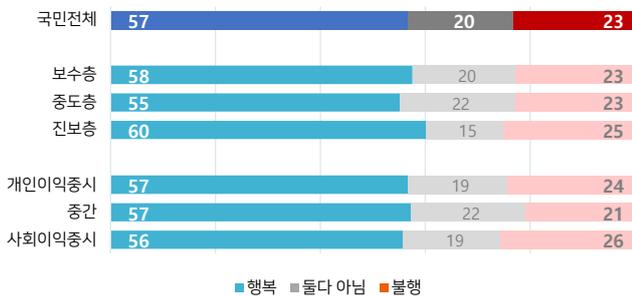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주관적 행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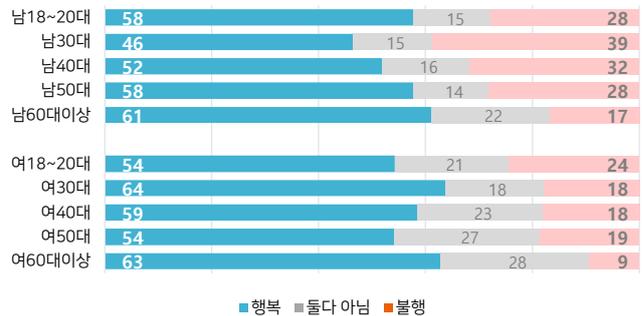
□ 자신에 대한 생각, '행복하다' 57% vs '불행하다' 23%

- 우리 국민 중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7%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3%로 조사됨
 -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는 국민은 20%로 나타남
 - "선생님은 평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거의 모든 계층에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남자 60대 이상 △여자 30대, 여자 60대이상 △충청, 호남 △400만원 이상 소득층 △화이트칼라, 주부층 △건강상태 좋음층 등임
- '불행하다'는 생각이 우세한 계층은 건강상태 나쁨층이며, '불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40세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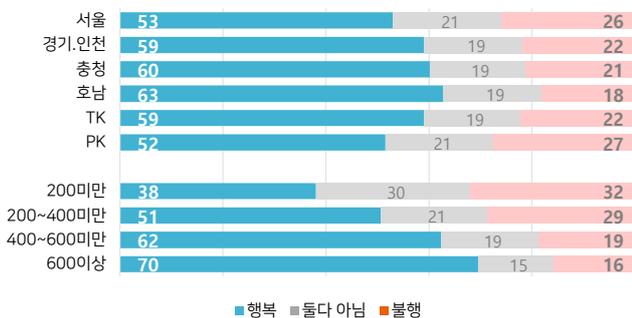
주관적 행복 여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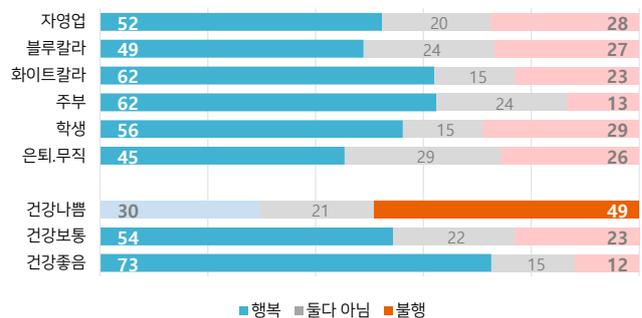
주관적 행복 여부 : 성/연령별 (2022.04.10조사,단위:%)



주관적 행복 여부 : 지역별,소득별 (2022.04.10조사,단위:%)



주관적 행복 여부 : 직업별,건강상태별 (2020.04.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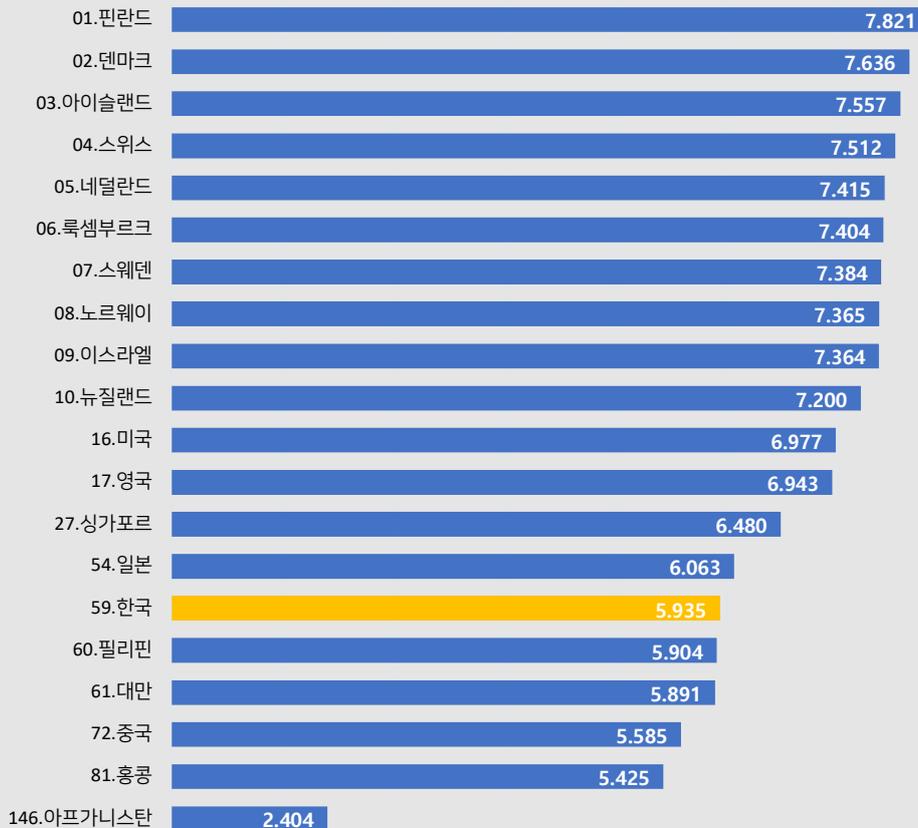
Kstat Point

- ☑ 스스로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과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의견이 비례해 높아지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역시 '행복하다'는 의견이 비례함
 - : 소득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 조건으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 건강은 신체적·정신적 활동 정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역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UN 행복지수 순위, 한국 59위 기록

-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매년 『세계행복보고서』 발간, 행복지수(World Happiness Index)와 국가별 순위를 발표함
 : 세계 각 나라 거주민들의 행복을 정량화하여 행복지수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정부.기업 및 시민사회의 행복 관련 기여도 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데 목표가 있음
- 행복 지수는 갤럽의 월드 폴(World Poll) 조사결과와 GDP 등 6가지 영역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종합해 산출함
 : 기대수명, 1인당 GDP, 관용, 사회적 지원, 부패인식,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임
- 2022년 3월 18일 공개된 『세계행복보고서 2022』에서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총 146개 국가 중 59위로 나타남
 : 한국은 GDP, 기대수명 항목에서 수치가 높았지만, 다른 항목이 낮으면서 59위에 그침
- 전 세계적으로 1위는 핀란드이고, 2위는 덴마크, 3위 아이슬랜드, 4위 스위스 등임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순위(27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소폭 높은 54위를 기록함
 : 중국은 72위로 한국보다 낮은 순위로 나타남

UN 행복지수 순위 2019~2021 (자료:세계행복보고서2022,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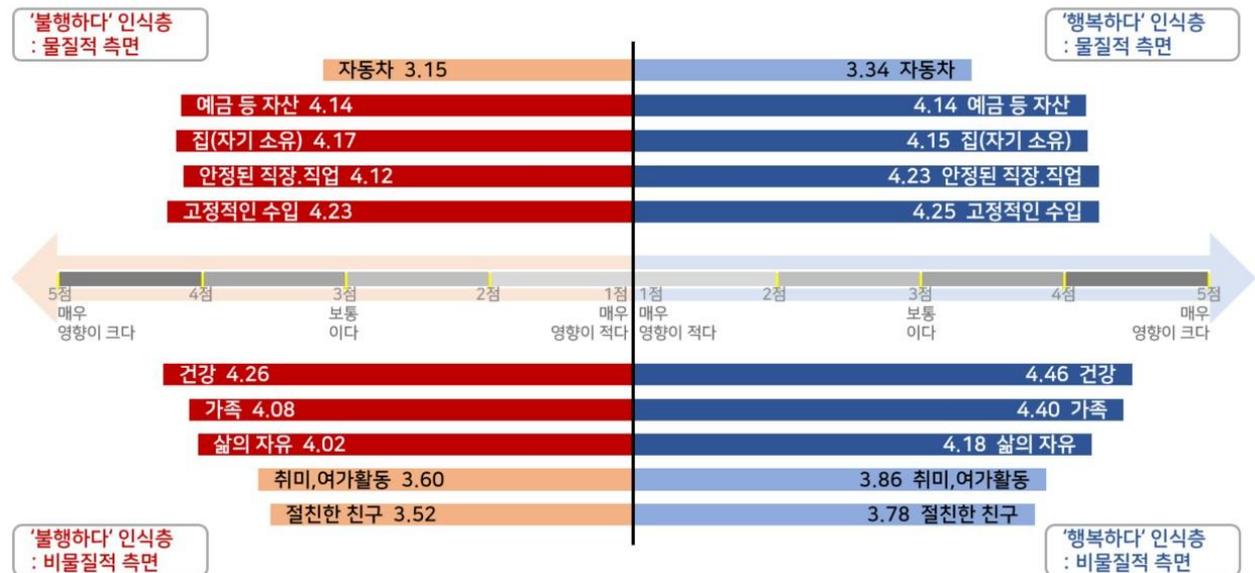
- 앞서 케이스탯 조사에서 한국인 중 57%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UN 행복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이 수치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행복의 조건'에 대한 생각

□ '고정적 수입'과 '건강'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 각각이 행복/불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함
 - 물질적 요인 : 집(자기 소유 집) / 자동차 / 안정된 직장.직업 / 고정적인 수입 / 예금 등 자산
 - 비물질적 요인 : 가족 / 절친한 친구 / 건강 / 삶의 자유 / 취미,여가활동
 - 앞서 '행복하다' 응답층은 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5점 척도로 기입토록 하고, '불행하다' 응답층은 '불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5점 척도로 기입토록 함
- 조사 결과 행복층, 불행층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정적 수입'과 '건강'으로 나타남
 - 물질적 측면 5가지 중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물질적 측면 5가지 중에서는 '건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물질적 측면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도 모두 4점 이상을 기록해, 행복/불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됨
- 비물질적 측면에서는 '건강', '가족', '삶의 자유'가 4점 이상을 나타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행복 요인별 영향력 평가 : 행복층/불행층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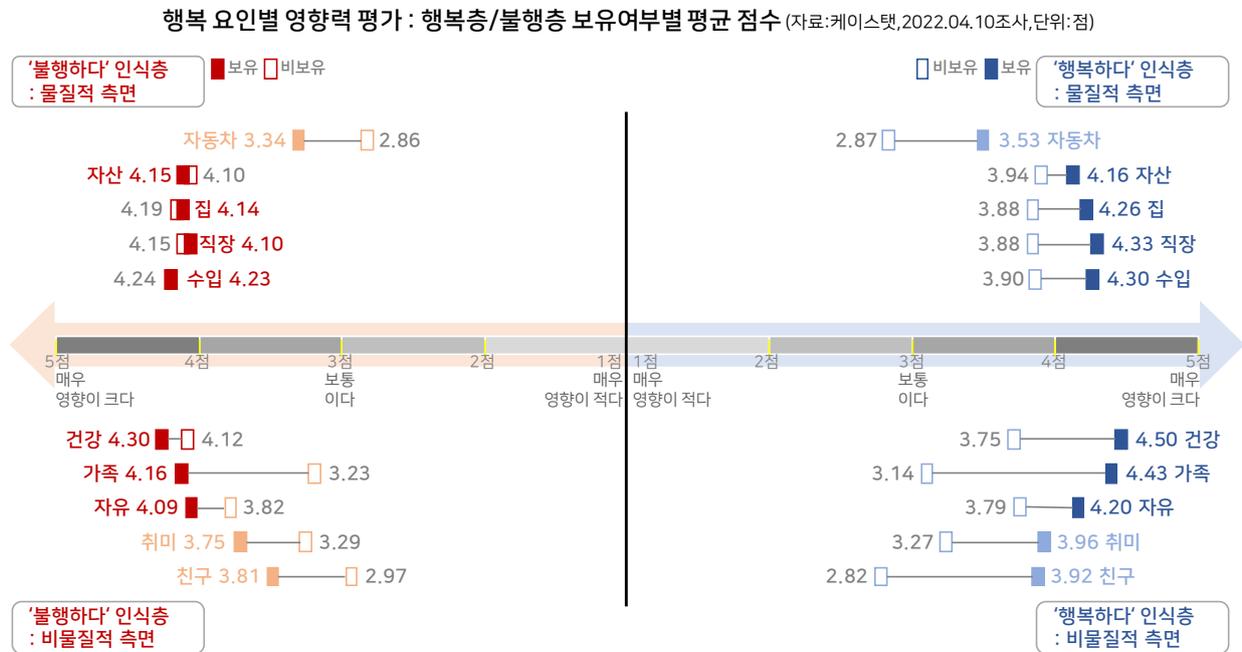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종합하면 먼저 물질적 측면에서는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된 직장.직업이 있어야 하며, 집과 예금 등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됨
: 자동차는 있으면 좋은 수준임
- ☑ 비물질적 측면에서는 건강해야 하고, 가족이 있어야 하며, 삶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임
: 취미,여가활동이나 절친한 친구는 있으면 좋은 수준임

□ 각 요인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향력 커져

- 각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영향력 점수를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향력 점수가 커지는 특징을 보임
- 먼저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국민 중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행복 영향력 점수는 대부분 4점 이상을 기록함
 - 이에 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들의 영향력 점수는 대부분 3점대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숫자가 '비보유층' 점수임
- '불행하다'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행 영향력 점수는 대부분 4점 이상임
 -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의 영향력 점수는 대부분 3점대를 기록함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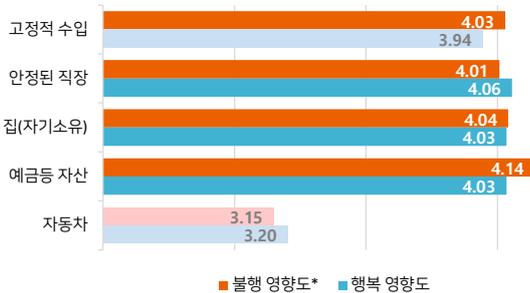
- ☑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질적 요인보다 비물질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을 다시 각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남
 - : 이러한 특징은 물질적 요인보다 비물질적 요인에서 두드러짐(보유/비보유층 간의 점수 간격이 더 큼)
- ☑ 하지만 불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복과 다른 것으로 보임
 - :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의 경우 물질적 측면에서 보유/비보유층 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음(자동차 제외)
 - : 비물질적 측면에서는 보유/비보유 층간의 점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보유층의 불행 영향력 점수가 더 높음
 - : 즉, 해당 요인을 보유하지 못하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행 영향력 점수가 높은 것임
 - : '불행하다'는 인식층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의 물질적/비물질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행복의 조건' 1 : 물질적 측면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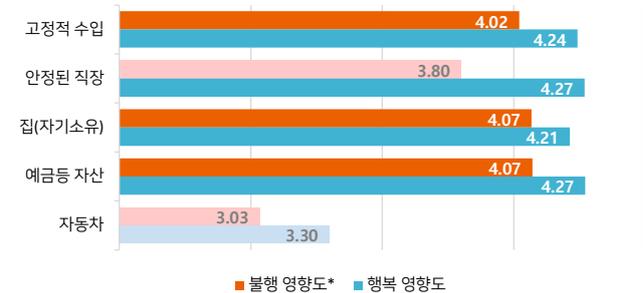
□ 2030세대, 여성층의 물질 요인 '행복 영향력' 높아

- 성/연령별로 '행복층'과 '불행층'의 물질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여성층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매우 높음
- 여자 2030세대 중 '행복층'의 물질 요인별 영향도는 대부분 4.2점 이상을 기록한데 비해, 남자 2030세대는 4.1 미만을 기록함
 - 여자 20대는 '안정된 직장'과 '예금 등 자산'이 공히 4.27점으로 가장 높고, 여자 30대는 '안정된 직장'이 4.34점을 가장 높음
 - 이에 비해 남자 20대는 '안정된 직장'이 가장 높은 점수지만 4.06점이고, 남자 30대는 '고정된 수입' 4.09점임
 - 자동차의 경우 남녀 모두 영향력 점수가 3점대로 낮음
- 또한 여자 2030세대는 '행복층'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는데 비해, 남자 2030세대는 '불행층'의 불행 영향력 점수가 높음
 - 다만, 남녀 2030세대 '불행층'의 표본 수가 50 미만이기(아래 그림 범례에 *표 표기) 참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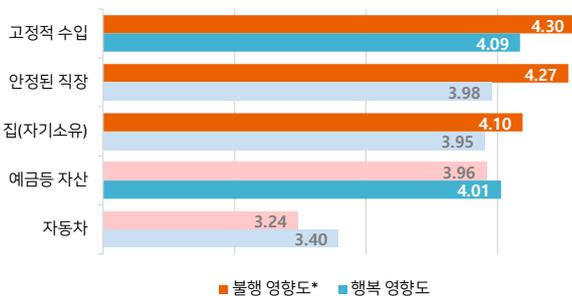
남자 20대,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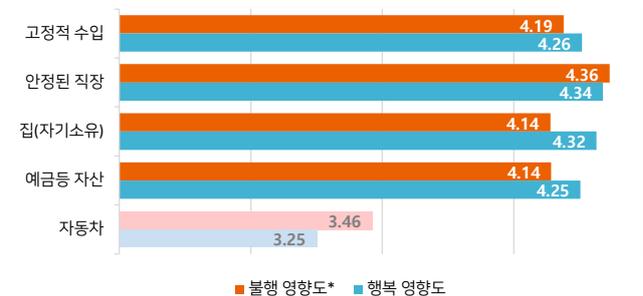
여자 20대,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남자 30대,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여자 30대,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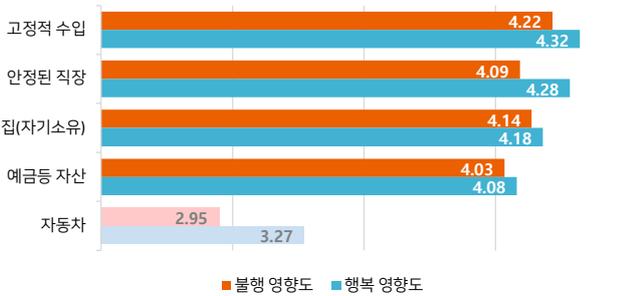
Kstat Point

- ☑ '행복의 조건' 중 물질적 측면에 대한 2030세대의 인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복 영향력'이 높다는 특징을 보임
 - ☑ 이는 2030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만큼 행복의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됨
- : 2030 여성의 불안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6호 『한국인 '불안 의식' 진단 및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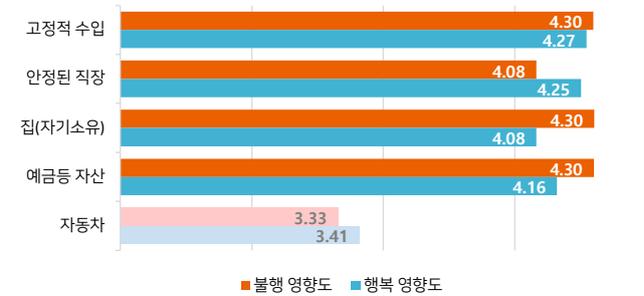
□ 40대 '행복 영향력' 높고, 5060세대 '불안 영향력' 높아

- 4060세대의 '행복층'과 '불행층'의 물질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40대는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은 데 비해 5060세대는 '불행 영향력' 점수가 높은 특징을 보임
 - 40대는 모든 물질적 요인에 대해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으며, 60대이상은 '불행 영향력' 점수가 높음
 - 50대는 안정된 직장을 제외한 모든 물질적 요인에 대한 '불행 영향력' 점수가 높음
 - 다만, 60대이상 '불행층'의 표본 수가 50 미만이기(아래 그림 범례에 *표 표기) 참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복층'만 놓고 보면 4060세대 모두 '고정적 수입'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불행층'의 경우에도 4060세대 모두 '고정적 수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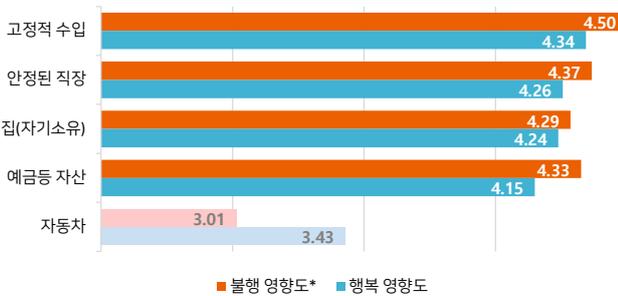
40대,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50대,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60대이상,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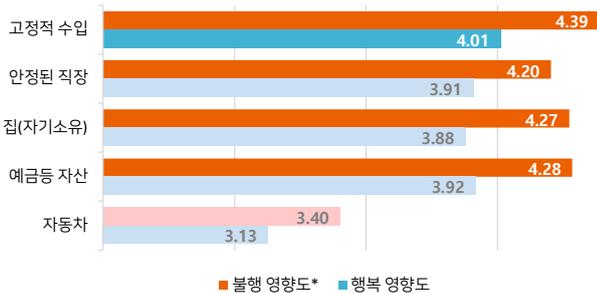
Kstat Point

- ☑ 40대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은 것은 앞서 2030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역작용인 것으로 분석됨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6호 『한국민 '불안 의식' 진단 및 분석』 참고)
 - :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성/연령별 불안 점수는 다음과 같음(10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 높음)
 - : 여자 20대 6.13점 / 여자 30대 5.89점 / 남자 20대 5.60점 / 남자 30대 5.64점
 - : 40대 5.73점 / 50대 5.46점 / 60대이상 5.28점
- ☑ 한편, 5060세대의 경우 '행복 영향력' 점수보다 '불행 영향력 점수'가 높은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무게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
 - : 2040세대에 비해 5060세대의 삶은 변화 가능성도 낮고, 희망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 : 현재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5060세대는 각각의 요인이 불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할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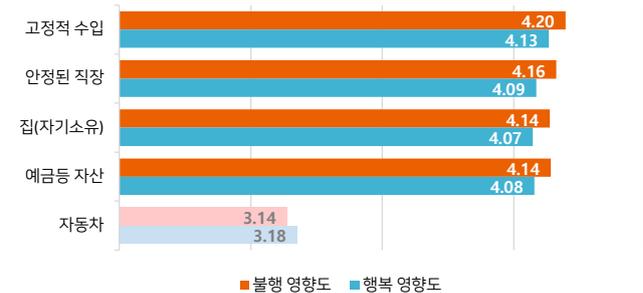
□ 소득 높을수록 '행복 영향력' 점수 높아져

- 월 소득별로 '행복증'과 '불행증'의 물질 요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아짐
 -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 '행복 영향력' 점수가 4점을 넘는 경우가 1개에 그침
 - 월 소득 200~400만원 미만에서부터 '행복 영향력' 점수가 대부분(자동차 제외) 4점 이상을 기록하고, 소득이 더 높아질수록 행복 영향력 점수 역시 더 높아짐
 - 월 소득 2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 '불행증' 표본 수는 공히 50 미만으로(아래 그림 범례에 *표 표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 소득 400~600만원 미만 계층의 '행복 영향력' 점수는 '고정적 수입'과 '안정된 직장'에서 가장 높음
 - 이에 비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계층의 '행복 영향력' 점수는 자동차를 제외한 4개 요인 모두에 걸쳐 골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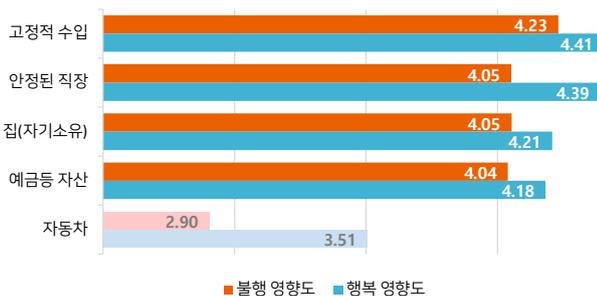
월소득 200만원 미만, 행복증/불행증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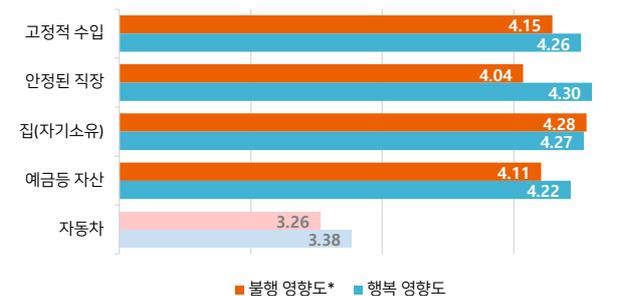
월소득 200~400만원 미만, 행복증/불행증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월소득 400~600만원 미만, 행복증/불행증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월소득 600만원 이상, 행복증/불행증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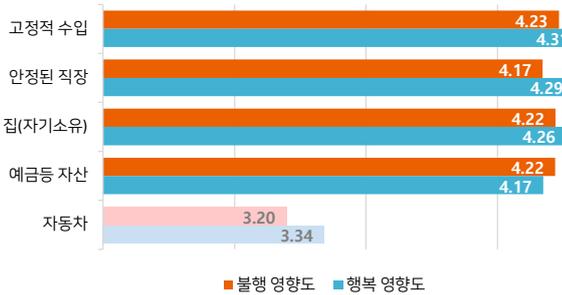
- ☑ 물질적 측면의 '행복 영향력'은 월 소득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본 보고서 서두의 '주관적 행복 여부'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음
- ☑ 한편,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스스로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보임
 - : 즉,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지 않기에, 물질적 요인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됨

□ 행복의 물질적 요인에 대한 보수층과 진보층 생각 비슷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진보층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자동차를 제외한 4가지 요인에 대한 '행복 영향력' 점수가 대부분 4.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이에 비해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행복 영향력' 점수가 낮으며, 불행층의 '불행 영향력' 점수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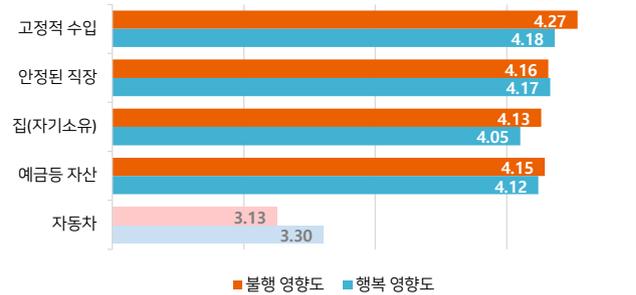
보수층,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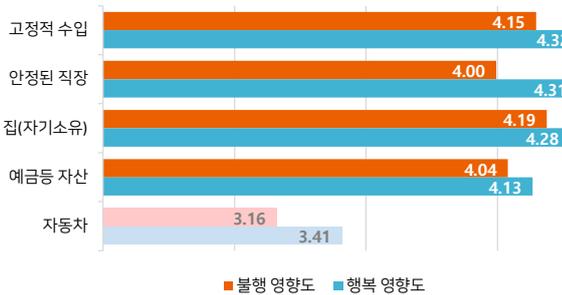
중도층,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진보층, 행복층/불행층 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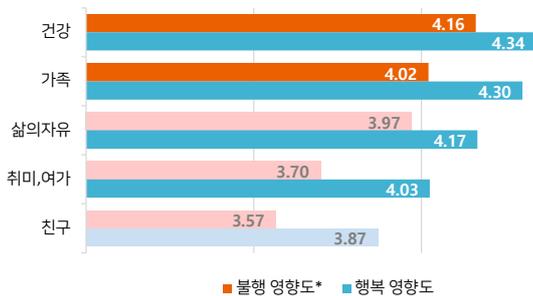
- ☑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뚜렷히 다른 태도를 보이지만, 행복의 물질적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모습임
 - : 한국 사회의 주관적 이념성향이 주로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 즉, 개인적 행복, 개인적 성공, 개인적 선호 등 개인 차원의 문제에서는 이념성향별 차이를 찾기 어려움

▶ '행복의 조건' 2 : 비물질적 측면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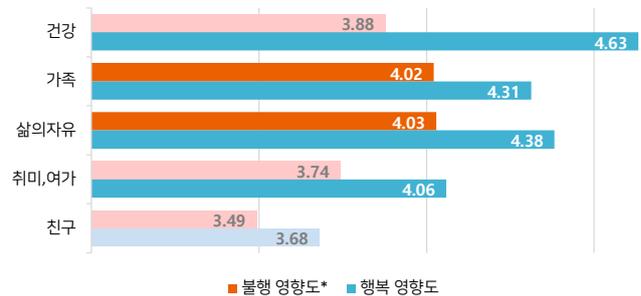
□ 20대와 30대, 그리고 세대내 남녀 차이 존재

- '행복층'과 '불행층'의 비물질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20대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30대보다 높음
 - 20대는 남녀 모두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인에 대한 '행복 영향력' 점수가 4점 이상을 기록한데 비해, 30대 남녀는 이에 미치지 못함
 - 특히 20대는 30대에 비해 '취미,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함
- 여기에 20대 남녀 간, 그리고 30대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음
 - 여자 20대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가장 높고, 남자 30대가 가장 낮음
- 한편, '불행층'의 '불행 영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성/연령대는 30대 남자로 나타남
 - 다만, 남녀 2030세대 '불행층'의 표본 수가 50 미만이기(아래 그림 범례에 *표 표기) 참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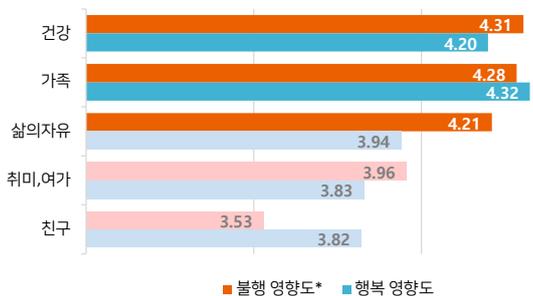
남자 20대,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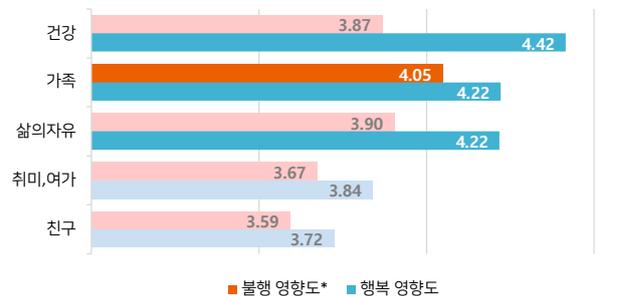
여자 20대,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남자 30대,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여자 30대,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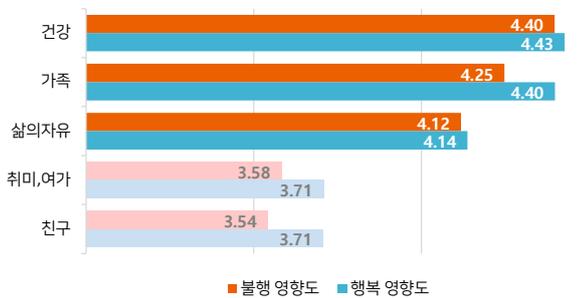
- ☑ 한국사회는 가치관 등 많은 면에서 2030세대와 4060세대 간의 차이가 뚜렷하며, 일부 이슈에서는 20대와 30대 간의 차이가 있고, 같은 세대내에서도 남녀 간 인식차이가 드러남
 - : 결혼과 육아가 대표적인데 20대와 30대 간의 생각차이가 분명하고, 같은 세대내에서도 남녀 간 생각이 같음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32호 『2030세대 특집 : 연애·결혼·출산·육아·의식 집중 분석』 참고

□ 4060세대, 연령 높아질수록 '행복 영향력' 점수 높아

- 4060세대의 '행복층'과 '불행층'의 비물질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동시에 '불행 영향력' 점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짐
 - 60대이상 '불행층'의 표본 수는 50 미만으로(아래 그림 범례에 *표 표기) 참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복층', '불행층' 모두 '건강'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함
 - 60대이상의 경우 '친구'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3.92점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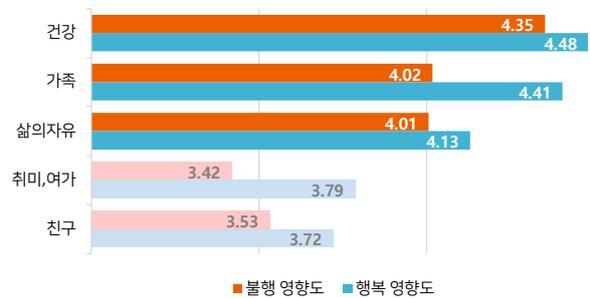
40대,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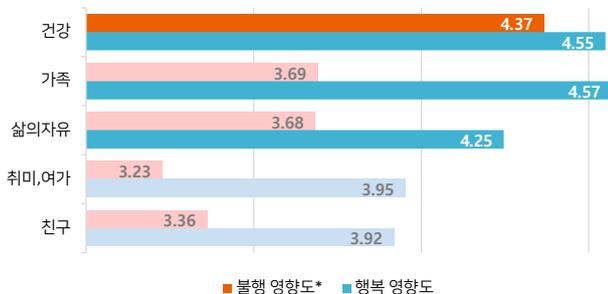
50대,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60대이상,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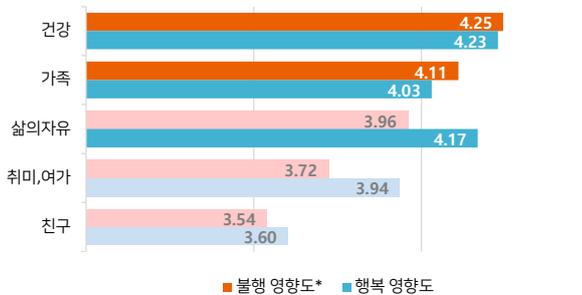
Kstat Point

- ☑ '취미,여가활동'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4점 이상을 기록한 성/연령대는 20대 남녀뿐임
 - : 이른바 '소확행'으로 불리듯 20대 남녀는 시간과 돈을 들여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함
 - : 또한 평소에는 초저가를 구매하며 돈을 아끼지만, 어떤 품목에서는 큰 돈을 쓰는 '자린고비 + 플렉스' 소비성향을 보이기도 함
- ☑ 한편, 4060세대를 포함해 거의 모든 세대에서 비물질적 요인에 대한 '행복 영향력' 점수가 물질 요인 '행복 영향력' 점수보다 높음
 - : 즉, 한국인은 모든 세대에 걸쳐 물질적 측면의 행복 조건도 중요하지만, 비물질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 그러나 '불행 영향력' 점수를 보면, 비물질적 요인보다 물질적 요인의 점수가 높아 '불행층'에게는 물질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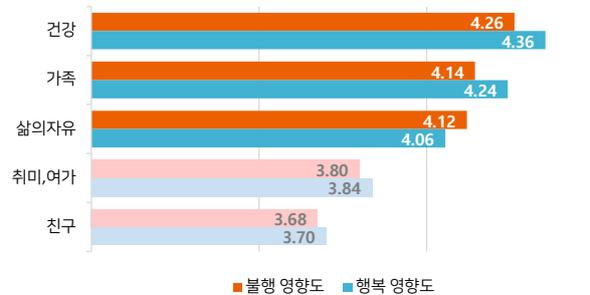
□ 소득 높을수록 비물질적 요인 '행복 영향력' 점수 높아져

- 월 소득별로 '행복층'의 비물질적 요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거의 모든 요인에 대해 소득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 '행복 영향력' 점수가 높아짐
- 다만, 월 소득 400~6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의 '행복 영향력' 점수는 거의 비슷함
- 한편, '불행층'의 경우 월 소득 200~400만원 미만의 '불행 영향력' 점수가 가장 높음
 - 월 소득 2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 '불행층' 표본 수는 공히 50 미만으로(아래 그림 범례에 *표 표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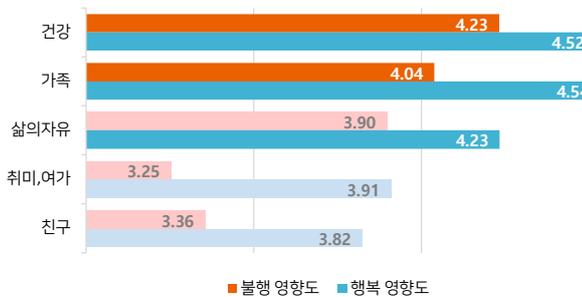
월소득 200만원 미만, 행복층/불행층 비물질적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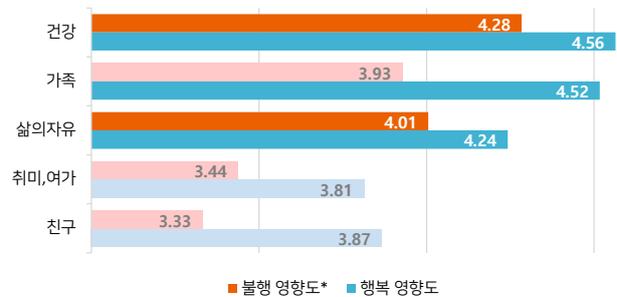
월소득200~400만원미만,행복층/불행층 비물질적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월소득400~600만원미만,행복층/불행층 비물질적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월소득 600만원 이상, 행복층/불행층 비물질적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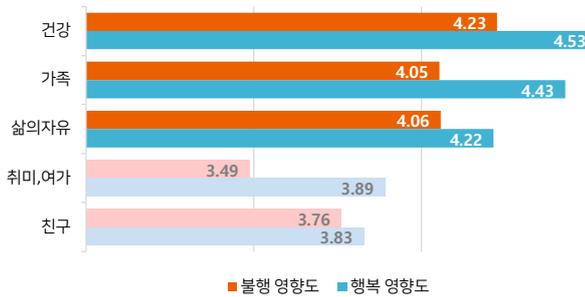
- ☑ 비물질적 측면의 '행복 영향력' 역시 소득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즉, 물질적 요인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 또한 물질적 측면의 '행복 영향력'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던데 비해, 비물질적 측면의 '행복 영향력'은 일정 소득에 도달하면 그 이상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임
 - : 400만원 이상 계층(400~6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에서는 '행복 영향력' 점수가 거의 같음
 - : 이는 비물질적 요인에 의한 행복감의 경우 단순히 소득(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줌
-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물질적 요인에 비례해 행복감이 계속 증대하는 것은 아님

□ 행복의 비물질적 요인에 대한 생각, 이념별 차이 없는 편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행복의 비물질적 요인을 살펴보면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모두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유사함
 -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가장 높고, 중도층이 가장 낮지만 큰 차이가 없음
- 또한 불행층의 '불행 영향력' 점수도 이념별 차이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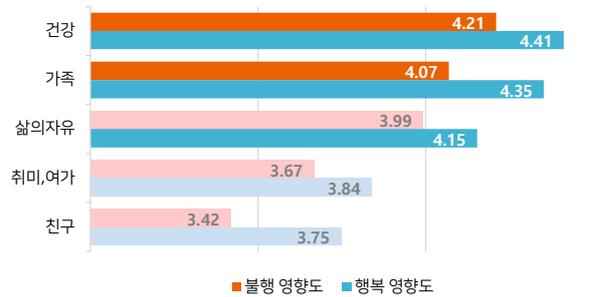
보수층,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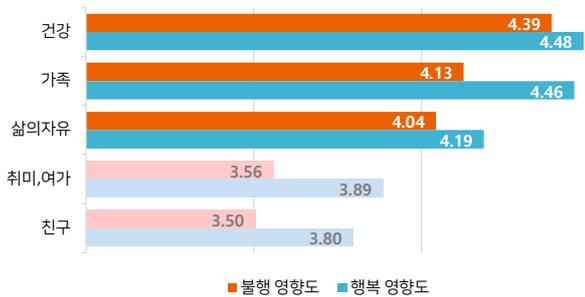
중도층,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진보층, 행복층/불행층 비물질 요인별 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앞서 행복의 물질적 요인에 이어 비물질적 측면에서도 이념성향별 차이는 거의 없음
: 차이가 있다면 중도층이 물질적 요인에 더 민감하다는 정도에 그침
- ☑ 정치·사회적 이슈와 다르게 개인적 측면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념성향별 차이를 찾기 어려움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50호, 51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0호와 51호는

각각 2022년 5월 12일(목요일), 5월 2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